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연이은 학생 자살 사건과 유명인의 자살 사건으로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우려 되는 상황이므로,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 강조 사항

- 1) 학교 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계기 교육 시행: [붙임 1]파일 활용
- 2) 우울, 고립,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인지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조기 상담의 중요성 안내: [붙임 2] 참고
- 3)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자녀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SNS,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안내 강화: [붙임]활용

나. 교육자료: 내 아이의 마음건강 지키기

- 붙임 1. 학부모용 교육자료 1부  
 2. 마음건강 소통창구 안내 포스터 1부.



2025년 6 월 26 일

**백 산 중 학 교 장**

# 내 아이의 마음건강 지키기

최근 발표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및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10-19세 소아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번 학부모 뉴스레터 특별호에서는 자녀의 마음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할 때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담았습니다.

## 1 누구나 힘들면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본인의 괴로움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아이에게 도움을 건네야 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당혹감을 직접 표현하거나 성급히 자녀를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 2 자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가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일시적인 스트레스 신호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심각한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 ① 식사와 수면습관이 변하고 식사를 잘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②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③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④ 일기장이나 SNS에서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⑤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⑥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⑦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보입니다.
- ⑧ 사후 세계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 ⑨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3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도와줄 수 있는 행동들

1) 관찰되는 모습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이유를 물어봅니다.

---

“요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니?”

---

2) 많이 힘들어하거나 ‘죽음’과 관련된 징후가 있다면 반드시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

“너무 힘들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 있니?”

“내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

3) 자녀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4)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녀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죽겠다’라는 아이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아이에게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표현을 한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

“엄마(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모를 뻔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줄 테니 함께 해결해 보자.”

---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아이의 요구 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5 신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Wee센터(교육지원청, 병원형) 연결 요청하기

-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의 학령기(초·중·고)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담당 교원 지원
- 지원내용 :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요청학교 상담·자문, 심리검사, 심리교육(특별교육, 집단상담 등)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찾는방법 : 위(Wee)프로젝트 홈페이지→기관찾기
- 홈페이지 : <https://www.wee.go.kr/home/wee/wee02001i.do>



### 비대면 청소년 상담 기관 안내하기

- [문자상담]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게' 문자 상담(1661-5004)
- [전화상담] 청소년 위기 응급전화 1388
- [전화상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이용하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보기

- 지원대상 : 만 9세~ 24세 청소년 또는 학부모
- 지원내용 : 청소년과 부모에 대상 상담·복지·프로그램지원, 폭력·학대 등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법률 및 의료 지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 찾는방법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지역센터
- 홈페이지 : <https://www.kyci.or.kr/userSite/cooperation/list.asp?basicNum=1>



###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보기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 고위험자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 지원내용 : 사례관리, 주간재활,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
- 찾는방법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관련기관→위치기반기관검색→지역선택→정신건강복지센터 체크
- 링크 : <http://www.mentalhealth.go.kr/portal/health/fac/PotalHealthFacListTab2.do>



2025. 06. 26.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02-6959-4639 (평일 09:00~17:00)



smhrc@schoolkeepa.or.kr



마음건강 소통창구

다들어줄게

청소년은 365일, 24시간  
모바일 상담이 가능해요!

TALK

다 들어줄게

문자메시지  
1661-5004

어플리케이션(APP)/카카오톡  
다들어줄게

라임(lime)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청소년 상담채널 life mate!

어플리케이션(APP)  
라임-청소년상담

위(wee)프로젝트  
누리집

위 프로젝트 누리집을 통해  
상담기관, 뉴스레터를  
볼 수 있어요!

Wee

클래스

유리가 희망이다!

wee.go.kr

학생정신건강센터  
누리집

학생 정신건강 관련  
사업과 자료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어요!

SMHRC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상담센터  
109

마음이 힘들 때,  
109로 전화주세요!

당신 곁엔  
109

정신건강상담센터 109

교육부

- 5 -